

지역 공공기관 '청년고용' 외면 빈축

GIST·도시관리공사·도시철도공사·광산시설공단 등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과 배치...실업 완화 앞장서야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왔으며, 2016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다. 실제로 지난해 청

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지만 이 가운데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이행 기관 수가 전년(82곳)보다 4곳 늘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7명으로, 전년(1만9천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천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 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업준비생 김모(25)씨는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정부 불신을 가져온다"며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최소장치인 청년고용의무 5%도 외면하는 공공기관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정부가 강제로 청년고용의무만 할당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정원외 인건비 확보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nicepen@

오늘의 날씨

광주	☁	9~22
나주	☁	7~21
장성	☁	6~21
담양	☁	6~21
화순	☁	7~22
영광	☁	9~21
함평	☁	9~21
목포	☁	11~19
무안	☁	10~20
영암	☁	9~21
진도	☁	10~19
신안	☁	9~19
순천	☁	7~19
광양	☁	8~20
구례	☁	5~21
곡성	☁	5~22
완도	☁	10~20
강진	☁	8~20
장흥	☁	6~20
해남	☁	9~20
여수	☁	10~19
보성	☁	6~19

해돋이 06:08 해질 19:01 달돋이 02:46 달짐 13:20

광주 패밀리랜드 '빅 아이' 첫 선

호남의 대표 놀이시설인 광주 패밀리랜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섰다.

광주 패밀리랜드(광주 북구 생용동 소재)는 이달 초 국내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대관람차가 1년여 공사 끝에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조물·플랫폼·상가·편의시설 설치 등에 30억여원이 투입된 대관람차는 최대 높이 75m로 국내에서 가장 높다.

큰 눈이라는 뜻의 '빅 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대관람차는 6명이 탈 수 있는 36개의 기구가 대형 원형 철제에 매달린 채 회전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는 놀이 기구다.

대관람차에 올라가면 호남권 최대 높이 공원 전경과 동물원, 대야제 저수지는 물론 멀리 담양 등의 풍광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일부 기구는 노래방 기계가 설치돼 있거나 바닥이 투명하게 돼 있는 등 관람객의 모험심을 자극한다.

외부 구조물에는 7가지, 무지개 색깔을 표현하는 10만개의 LED 조명이 설치돼 있고, 구조물 중앙에는 지름 8m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최신 미디어인 '파사드' 조명 연출도 가능하다.

전광판을 이용한 생일 축하, 청혼 등 다양한 이벤트 연출도 가능해 연인, 친구들에



광주 북구 생용동 광주 패밀리랜드 공원에 새롭게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게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장 첫날 2천500여명이 찾는 등 일주일 만에 관람객이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 패밀리랜드는 대관람차 도입과 별도로 지난해부터 중앙광장 포장과 상가건

물 리모델링 등 대대적인 시설개선에 나서 등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또 낮고 선도가 떨어진 놀이기구 교체에 나서는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선호하는 새로운 놀이기구 확충에 나선다.

광주 패밀리랜드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도 하고 있다"며 "초대형 구조물에 설치된 LED 조명의 폭죽 연출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고 말했다. /강예찬 기자 rkd9538@

높이 75m 대관람차...국내 최대 규모 최신 설비 갖춰 새로운 랜드마크 기대

약대 14년만에 학부 모집 부활

2022학년도부터...올해 중3 학생 해당

올해 중3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부터 6년제 약학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약대가 2008학년도에 08학번 신입생을 모집한 뒤 이듬해부터 학제를 바꾼 점을 고려하면 14년 만에 신입생 모집이 부활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9일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새로운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4년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

학부에서 2년 이상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뒤 약대에 편입해 4년간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체제다. 교육부는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약대 수업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2009학년도부터 2+4년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약대 신입생 선발은 2008학년도가 마지막이었고, 2009~2010학년도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2011학년도에는 학부 2학년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편입생 모집이 시작됐다. /이순로 기자 srlee@

지리산 수달 '다시 자연으로'

국립공원공단, 야생 훈련 뒤 방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수컷 2마리를 9일 자연으로 방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된 수달 2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구조된 1년 미만의 어린 개체로, 당시 탈진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발견돼 구급조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의료센터로 인계됐다.



종복원기술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야생동물의료센터 훈련장에서 이들 2마리를 상대로 미꾸라지와 소형 어류 등 살아있는 먹이로 야생 적응 훈련을 했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jndomin.kr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T 062 227 0000 F 062 227 0084 www.jndomin.kr